

육계자조금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사)대한양계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국립수목과학검역원·농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의 가치와 공정성이 높습니다.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닭고기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국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닭고기 외식업체 및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

AI소식 AI 소강상태, 이동제한 해제 순조롭게 진행

닭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닭은 언제부터 먹었을까?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2011 **4** volume 18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홍보사업에 중점

육계자조금관리위,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서면결의

2011년 육계자조금사업은 농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주력하고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는 소비홍보활동을 통해 육계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에 힘을 보탬이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 이하 관리위)는 지난 3월 15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육계자조금사업계획서(안)를 서면 결의했다. 이번 서면결의는 지난 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발생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인해 농가들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대신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2011년도 육계자조금사업계획서(안)의 사업규모는 농가거출금 7억1천만원과 정부보조금 7억원, 2010년도 이월금 1억9천만원 등 총 16억원으로, 관리위는 3월말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거쳐 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1년도 육계자조금사업계획서(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16억원 중 52.5%에 해당하는 8억4천만원을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투입하고, 소비홍보사업에는 총 2억2천만원(전체 예산의 13.8%에 해당)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연구용역사업에는 1억8천만원(11.3%), 수급안정사업에는 8천만원(5%)를 각각 배정했다.

올해 육계자조금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관리위는 이를 통해 농가의 자질향상과 육계자조금의 거출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총 2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소비홍보 사업은 지난 해 다소 성과가 부진했던 TV·라디오 광고를 과감히 없애고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산 닭고기의 이미지 재고를 통해 수입산과의 차별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R&D(연구개발)



“2011년도 육계자조금사업계획서(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16억원 중 52.5%에 해당하는 8억4천만원을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투입하고, 소비홍보사업에는 총 2억2천만원(전체 예산의 13.8%에 해당)의 예산을 배정했다.”

발)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용역사업에 전체 예산의 11.3%를 책정하여 생산비절감 대책 및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발한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올해 신설된 수급안정사업에는 총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계에서부터, 육용, 실용계 등의 생산물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닭고기의 수급변동을 예측, 농가들에게 닭고기 수급조절 및 경영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징수수수료에는 3천500만원(2.2%), 운영비 1억2천241만원(7.7%), 예비비에 1억2천259만원(7.7%)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한편, 올해 육계자조금사업에 신설된 사업들도 눈에 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육계사 전기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육계농가 해외연수(네덜란드 PTC+), 양계사진공모전 등 총 8개 사업이다. 관리위는 새롭게 신설된 사업을 통해 거출된 육계자조금의 이익을 최대한 농가에게 되돌려 준다는 계획이다. 🍷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

(단위 : 천원)

내 용			2010년	2011년	증/감(△)	백분율 (%)	주관 기관	비고
계정(항)	단위사업(목)	세부사업(세목)						
1. 교육 및 정보제공	1. 생산농가 자질향상	교육 및 정보제공	760,000	840,000	80,000	52.5		
		육계농가 HACCP교육비 지원	20,000	20,000	-	1.3	농협	
		육계사전기안전점검	-	40,000	40,000	2.5	농협	신설
		전문육계 CEO 과정교육	30,000	60,000	30,000	3.8	양계협	
		AI 대비 전국양계인대회 및 육계인대회	100,000	100,000	-	6.3	양계협	
		육계생산성향상 국제심포지엄	30,000	-	△30,000	-	농협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 및 토론회	120,000	60,000	△60,000	3.8	양계협	
		정책개발 세미나	30,000	30,000	-	1.9	양계협	
		종계생산성 향상 교육	30,000	25,000	△5,000	1.6	양계협	
		육계농가해외연수(네델란드 PTC+)	-	60,000	60,000	3.8	양계협	신설
	2. 생산자 및 소비자 정보제공	축산물 전시행사	30,000	45,000	15,000	2.8	공동	
		닭고기 요리강습회	30,000	30,000	-	1.9	농협	
		자조금소식지 발행	90,000	95,000	5000	5.9	양계협	
		전국 닭고기 요리경연대회	60,000	50,000	10,000	3.1	양계협	
		국내산 닭고기 인증사업	50,000	50,000	-	3.1	양계협	항/목변경
		인터넷정보제공	50,000	20,000	△30,000	1.3	사무국	
		양계사진 공모전	-	20,000	20,000	1.3	사무국	신설
		핸드폰 통화연결음서비스	20,000	-	△20,000	-	사무국	
	3. 자조금 거출 활동 홍보	올바른 닭고기 정보제공(지역별)	120,000	65,000	△55,000	4.1	공동	항/목변경
		거출기관 홍보지원교육	20,000	-	△20,000	-	계육협	
대의원활동 및 조직화 교육		80,000	40,000	△40,000	2.5	공동		
		자조금거출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20,000	30,000	10,000	1.9	사무국	
2. 조사연구	1. 조사연구 용역	조사연구	170,000	180,000	10,000	11.3		
		국내계열화사업 연구	70,000	-	△70,000	-	양계협	
		국내질병 발생동향과 대응방안 연구	40,000	-	△40,000	-	양계협	
		육계생산비절감 방안 연구	30,000	-	△30,000	-	양계협	
		병아리이력제 및 품질보증제에 관한 연구	30,000	-	△30,000	-	양계협	
		육계농가 기초자료 D/B 구축	-	50,000	50,000	3.1	양계협	신설
		지역브랜드 육성 방안연구	-	50,000	50,000	3.1	양계협	신설
		계약방식에 따른 사육비 적정성평가 연구	-	80,000	80,000	5.0	양계협	신설
3. 수급안정	1. 수급안정 홍보	수급안정	-	80,000	80,000	5.0		
		육용실용계 수급예측 사업	-	80,000	80,000	5.0	양계협	신설
4. 소비홍보	1. 광고	소비홍보	330,000	220,000	△110,000	13.8		
		TV·라디오 광고	100,000	-	△100,000	-	사무국	
		닭고기 먹는날 행사(지역별)	120,000	-	△120,000	-	공동	
		온/오프라인 각종매체 홍보	-	150,000	150,000	9.4	공동	신설
		공익행사 닭고기 협찬	20,000	20,000	-	1.3	농협	
	2. 홍보물 제작	신문광고 및 홍보물제작	20,000	50,000	30,000	3.1	사무국	
		육계자조금 CI/BI 공모	20,000	-	△20,000	-	사무국	
		징 수 수 수 료		36,250	35,000	△1,250	2.2	사무국
운 영 비		72,500	122,410	49,910	7.7	사무국	사업 8%	
예 비 비		131,250	122,590	△8,660	7.7	사무국		
합 계		1,500,000	1,600,000	100,000	100			

이동제한 피해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해야

농식품부, AI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개선책 발표

“ 당초 AI로 인한 이동제한은 기간 및 설정 목적에 맞게 유지하되 산란계, 출하가 임박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내려지는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농가 및 해당 시도, 도축장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선지침이 발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1일 ‘AI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개선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시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AI 발생농장 등에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출하를 앞둔 육계, 육용오리 농가의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대상 농가를 파악하고 적용방법 및 해당 농가의 방역실태를 확인한 후 개선지침을 적용하면 된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 지침을 보면 당초 AI로 인한 이동제한은 기간 및 설정 목적에 맞게 유지하되 산란계, 출하가 임박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적용대상은 이동제한지역 외에 지리

적 위치에 따른 AI 역학관련 농가중 도축장 출하가 임박한 육계 농가 및 산란계 농가로 출입통제 및 소독(농장입구 소독실시, 축사별 소독조 및 축사 전용 작업화 작업복 운영)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기록 관리를 하는 농가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동일인이 AI 발생농장의 환축과 역학관련 농가의 가금을 직접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농장의 가금 분뇨 등 오염물질을 직접 거래한 경우는 제외된다.

육계의 경우 개선지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장주, 각 시군, 도축장이 매뉴얼에 따라 개선지침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농장주는 이동제한 시점부터 출하 전까지 닭의 폐사, 임상증상(사료섭취저하, 벼슬척색증, 원기소실, 기침, 설사, 신경증상 등) 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관찰 시군에 보고하는 한편 사양 위생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또한 출하 전(1~2일전) 관찰 가축방역기관에 출하검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농가의 출하검사 신청을 받은 해당 시군의 가축방역기관은 출하 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간이진단 키트)를 실시해야 하고 만약, 음성일 경우 농장예찰 증명서를 발행한 후 반드시 해당 시군에 통보해야 한다. 이 후 시군의 승인을 받은 닭은 가금전용운반차량을 통해 도축장으로 운송된다.

도축장에서는 농장예찰(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시 일반 닭과 별도로 분리해 도축(당일 마지막 도축 등)해야 한다. 🍗



가금농가, 자체 방역 및 소독 강화해야

농식품부,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거듭 당부

‘고병원성 AI의 차단을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자체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닭·오리 등의 도축장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최근 ‘AI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개선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3월 15일 농가들에게 다시 한번 AI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4월 중순이 지나야 우리나라에 도래하고 있는 야생철새가 떠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AI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의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을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가금사육농가는 가금적 철새도래지를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금사육농가의 경우 자체 방역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전용 신발을 항상 비치해 두고 축사밖에서 사용하는 신발을 신고서는 축사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잔반을 농가 주위에 널어놓거나 열처리 되지 않은 잔반을 닭이나 오리 등에 급여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축사주위와 농가를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매일 사육 가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야생조류와 가금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 및 축사 주변에 사료

찌꺼기 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닭 오리 등의 도축장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소독을 요구했다. 도축장을 출입하는 모든 가금 관련 차량에 대해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어리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매주 1회 이상 도축장 내·외부 등 전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각 자치단체 및 협회에서는 위의 농가 준수사항을 SMS 등을 활용해 통보해야 하고 AI 발생(양성 포함) 농가에 대해서는 잔존물의 처리결과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AI 방역조치 미이행 등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행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협회 관계자 등(특히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 농가 및 도축장의 방역조치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도 또는 시군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고발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매일 사육 가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야생조류와 가금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 및 축사 주변에 사료 찌꺼기 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AI 소강상태, 이동제한 해제 순조롭게 진행

3월 6일 이후 AI양성 단 1건 발생, AI 종식 수순 밝아

“지자체별 AI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개 시·도 총 23개 시군에서 51건의 AI 양성판정이 내려졌는데 이 중 전남에서 23건(영암 9, 나주 8, 화순 1, 장흥 1, 여수 1, 보성 1, 담양 1, 고흥 1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이동제한조치 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AI 종식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에 따르면(3월 24일 기준) 지난 3월 6일 이후 22일 경북 영천에 위치한 산란계농장의 AI 양성판정을 제외하고는 의심신고나 발생건수가 없고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된 곳이 72.5%에 달해(51건 중 37건 해제) AI 종식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부터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지금까지 총 99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51곳에서 AI 양성판정이 내려졌다. 이 후 농식품부에서는 양성으로 판정된 지역의 가금류 이동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6일 경기도 용인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지난 22일 경북 영천 단 한곳에서 AI가 발생했을 뿐 별다른 신고접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별 AI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개 시·도 총 23개 시군에서 51건의 AI 양성판정이 내려졌는데 이 중 전남에서 23건(영암 9, 나주 8, 화순 1, 장흥 1, 여수 1, 보성 1, 담양 1, 고흥 1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경기도에서는 17건(안성 4, 이천 4, 파주 1, 양주 1, 평택 3, 화성 1, 동두천 1, 여주 1, 용인 1건)이 발생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AI발생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이 6건(천안 5, 아산 1건), 전북(익산 1, 고창 1건)과 경북(성주 1, 영천 1건)에서 각각 2건, 경남(양산)에서는 1차례 AI가 발생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조)

AI 발생으로 인해 지금까지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 가금류를 매몰한 농가는 269개에 달하며 총 627만 1천수의 가축이 매몰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후 AI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3월 6일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인 만큼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농

AI 발생 및 신고현황(3월 24일 기준)

신 고 건 수			검 사 실 적			
전일누계	3월 21일	누 계	양 성	음 성	검사중	계
99	0	99	51	48	0	99

▶ 발생지자체 : 6개 시·도 23개 시·군(경기 17, 충남 6, 전북 2, 전남 23, 경북 2, 경남 1건)

- 경기 : 안성 4, 이천 4, 파주 1, 양주 1, 평택 3, 화성 1, 동두천 1, 여주 1, 용인 1건
- 충남 : 천안 5, 아산 1건
- 전북 : 익산 1, 고창 1건
- 전남 : 영암 9, 나주 8, 화순 1, 장흥 1, 여수 1, 보성 1, 담양 1, 고흥 1건
- 경북 : 성주 1, 영천 1건
- 경남 : 양산 1건



“이동제한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총
17곳의 이동제한지역 중 아직까지
이동제한이 풀리지 않은 곳은 9곳
에 달한다. 이밖에 전북의 익산과
고창, 경북 성주는 이동제한이 모
두 해제되었고 경남 양산은 3월말
쯤 이동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
인다.”

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
제하고 있다.

이동제한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
고 있는 지역은 전남으로 총 23개의
이동제한지역 중 지금까지 이동제한
이 해제되지 않은 곳은 담양과 고흥
단 2곳이며, 나머지 21개 지역에서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됐다.

충남 지역도 천안 한 곳을 뺀 나머
지 5곳에서 이동제한이 해제돼 조만

간 가금류의 이동 및 재입식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이동제
한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곳
은 경기도로 총 17곳의 이동제한지역
중 아직까지 이동제한이 풀리지 않은
곳은 9곳에 달한다.

이밖에 전북의 익산과 고창, 경북
성주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되었고
경남 양산은 3월말쯤 이동제한이 해
제될 것으로 보인다. 🍀

AI 관련 이동제한해제 현황(3월 24일 기준)

시·도	이동제한 시·군	해제 시·군	잔여 시·군
경기(17)	안성(4), 이천(4), 평택(3), 파주(1), 양주(1), 화성(1), 동두천(1), 여주(1), 용인(1)	안성(3), 파주(1), 양주(1), 평택(3)	안성(1), 이천(4), 화성(1), 동두천(1), 여주(1), 용인(1)
충남(6)	천안(5), 아산(1)	천안(4), 아산(1)	천안(1)
전북(2)	익산(1), 고창(1)	익산(1), 고창(1)	-
전남(23)	영암(9), 나주(8), 화순(1), 장흥(1), 여수(1), 보성(1), 담양(1), 고흥(1)	화순(1), 장흥(1), 여수(1), 나주(8), 보성(1), 영암(9)	담양(1), 고흥(1)
경북(1)	성주(1), 영천(1)	성주(1)	영천(1)
경남(1)	양산(1)	-	양산(1)
계	51개소	37개소	14개소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시 중화시킨 후 사용해야 이동제한지역 가축분뇨처리 및 소독요령 보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월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 이동제한 조정 및 소독요령을 각 시·군에 통보했으나 3월 농가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보완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농가는 이같은 내용을 준수해 분뇨처리를 해야 한다. 다음은 일부 보완된 가축분뇨처리 및 소독요령을 살펴본다.

분뇨·액비·퇴비 이동을 위한 소독 검사 요령

**가축분뇨·퇴비·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가축분뇨·액비의 소독은 구연산 등을 사용하여 pH 5 이하로 산성화하거나 가성소다 등을 사용하여 pH 10 이상 알칼리성으로 처리한 후 다시 중화(pH 6~8)시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성소다(NaOH : 순도 98% 분말가루 시중유통)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1,000ℓ)에 450g을 혼합하여 처리 후 구연산 300g으로 중화해 사용하고, 구연산(Citric acid : 순도 99% 시중유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에 500g을 혼합하여 처리 후 가성소다 250g으로 중화해 사용하면 된다. 또한 가축분뇨·퇴비·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퇴비의 경우 포장된 완제품은 산성제제 등으로 외부 포장을 소독 후 반출하고, 비포장된 반제품은 1톤당 생석회 50kg을 혼합하여 소독 후 반출하면 된다.

가축분뇨의 소독시 반드시 고글, 마스크,

크,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소독제가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해야 한다.

pH 검사는 시·군이 화공약품상 등에서 판매하는 pH-paper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소독 처리된 분뇨 액비를 1ℓ 정도 용기에 담아 pH-paper를 2~3초간 넣었다 꺼낸 후 색깔로 판단하게 된다.(pH-paper를 구매할 때 첨부된 pH 조건표에 따라 판정)

이동제한 지역별 반출 요령

**AI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기간 중
분뇨·퇴비·액비의 반출이
금지된다.**

AI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기간 중 분뇨·퇴비·액비의 반출이 금지된다.

AI가 발생해 농장 전체의 가축을 매몰처리한 경우에는 소독 후 매몰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독 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장에 보관하면 된다.

일부 가축을 매몰처리한 경우는 축사 바닥 아래 저장된 분뇨에 대하여 소독 실시 후 매몰처리하거나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해당농장에 보관하면 된다. 다



만 이동제한으로 인해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분뇨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뇨 저장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km이내 공동처리장 등이 있는 경우 소독 후 반출하면 된다.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분뇨는 소독을 실시한 후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시·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농가는
시·군에 신고 → 시·군 pH 검사
→ 반출 허용**

**가축분뇨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을 실시해 외부에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지역(3km이내)은 그동안 가축분뇨·퇴비·액비는 농장내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에 보관하고, 위험지역내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을 경우 이동이 가능하였으며 단 가축분뇨의

정화 방류는 가능했다. 그리고 경계지역(3km~10km이내)는 농장내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에 보관하되, 경계지역내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했다. 다만, 경계지역 밖으로 이동할 경우, 소독 실시 후 가축방역관의 지도 감독하에 이동 가능했다.

그러나 농장에서 오랜 기간 분뇨를 쌓아두게 되면 불편함이 많아 가축분뇨는 관내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을 실시해 외부에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퇴비의 경우는 포장단위 완제품은 포장별 외부소독을 한 후 반출하고,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반제품은 생석회를 혼합하는 등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했다.

액비는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해 중화시킨 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관리자를 지정해 농가별로 반출 내역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



구 분	현 행	조 정
위험지역 (3km이내)	• 농장내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에 보관하되, 위험지역내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시설로 이동 가능 - 가축분뇨·퇴비 액비는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위험지역내 보관(단, 가축분뇨 정화 방류 가능)	• (가축분뇨) 관내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 반출 • (퇴비) 포장단위 완제품은 포장별 외부소독 후 반출,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반제품은 생석회를 혼합하는 등 소독실시 후 반출 • (액비) 소독을 실시후 반출, 중화시킨 후 농경지 살포
경계지역 (3~10km이내)	• 농장내 처리시설 및 저장조 등에 보관하되, 경계지역내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시설로 이동 가능 - 다만, 경계지역 밖으로 이동할 경우, 소독 실시 후 가축방역관의 지도 감독하에 이동 가능 * 시장 군수는 지도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반차량 지정, 소독실시, 반출처·반입처 등 기록관리	※ 시군 관리자 지정, 농가별 반출 내역 등 기록 관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축산농가에서 지켜야 할 일



▲ 차단방역 : 출입자·출입차량 철저히 소독



▲ 야생조류 출입차단 : 문단속 그물망 설치



▲ 농장소독 : 철저한 소독, 살충과 쥐잡기



▲ 발생국 여행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2~3회/주 축사와 주변 소독 철저

■ 부득이하게 여행한 경우 신발세척,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후 귀가

야생동물의 가금류 접촉방지

-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의 야생조류 침입 방지
그물망 설치, 창문 닫음
- 사육농장 주변 및 경계에 생석회 도포
-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 제거 등 청결 유지
- 쥐 및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 철새도래지·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자제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지역) 방문 금지

농장차단방역 질병유입 방지

- 농장 출입구는 1개소는 제한하고 출입 통제
- 농장출입 사람·차량은 전문약제로 소독 철저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장·행사장·모임 등
출입금지
-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2주 이상 농장에 출입
을 금지함. 🚫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재발방지에 최선’

농협·축산관련단체 청정축산운동 선포식 가져

‘AI와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질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앞장선다’

대한양계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서울지역본부에서 24개 축산관련단체 협의회장, 학회, 소비자단체, 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축산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운동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발생된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정부와 축산관련단체들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정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축산사업장 대상 청정 축사현장 진단 및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국제심포지엄 개최, 청정 축산 카운슬러 양성 및 홍보대사 운영, 축산농장 환경개선

평가 설문, 우수청정축산운동 공모 및 시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AI, 구제역에 따른 가축매물, 가축분뇨 문제로 축산업계가 위기상황”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축산업계가 더욱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포식을 계기로 청정축산운동 분위기가 조성되면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정축산운동 선포식에 앞서 지난 21일 각 지자체 별로 축산인, 지역 축산·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축산운동 실천 및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고 23일에는 봄맞이 전국 축산농가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청정축산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매주 한번 있던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주2회로 늘리는 한편, 축산관련 업체들도 매주 토요일을 ‘청정축산 실천의 날’로 정해 축산시설을 청소·소독하기로 결정했다. 🍌

우리나라에서 **닭**은 언제부터 먹었을까?

삼국시대 이전부터 닭을 기른 것으로 추측

우리나라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10.4kg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육류 중 돼지고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쇠고기에 비해서도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닭고기를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옛말에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말이 있듯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닭고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다양한 요리를 통해 즐겨먹는 닭고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닭고기를 먹기 시작했을까?

삼국시대 이전 우리나라에 유입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닭이 길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기록을 통해 지금으로부터 약 2천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들어왔거나 중국의 남, 북부를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3세기 중엽에 나온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는 ‘한(韓)나라(지금의 우리나라)에는 진기하고 아름다운 꼬리가 긴 닭이 있는데 그 꼬리의 길이가 5척이 넘는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 시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닭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신라시대 대표적 고분인 천마총에서는 서기

400~500년경으로 보이는 계란이 출토되었고 고구려의 무용총에서는 꼬리가 긴 닭의 벽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닭을 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조선시대에도 다양한 기록 남아 있어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충렬왕 때 우리나라에서 포제(捕鷄, 닭을 잡는 것)를 금한다는 기록이 있고 충숙왕 제위 시절인 1325년에는 금령을 내려 ‘이제부터 닭, 돼지, 거위, 오리 등을 길러서 제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소, 말을 죽이는 자는 죄를 벌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중국 송나라 때 문헌인 ‘개보본초(開寶本草)’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때는 조선의 닭을 써야만 한다고 기록돼 있고 명나라 때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수많은 닭의 종류 중 조선산 장미계는 다른 닭에 비해 맛이 월등히 좋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밖에도 1827년 경에 편찬된 농업백과사전인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조선일종 장미 삼사책’이라고 기록돼 있어 조선시대 우리나라에도 긴 꼬리닭이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복날=삼계탕, 오래된 풍습에서 비롯

무더위가 한창인 복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은 아마도 삼계탕일 것이다. 복날이 되면 삼계탕을 먹는 것은 무더위에 시달려 몸에서 빠져나간 기를 보충하는 의미로 보양식을 먹던 옛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단백질이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은 닭고기는 여름에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고 몸의 영양을 보충하는 데 제격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닭은 삼국시대 이전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동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복잡한 것은 싫다! 초간단 닭고기 요리

닭가슴살 샐러드 & 닭살 옥수수 튀김

닭고기 요리는 닭의 손질에서부터 익히는 데까지 꽤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리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복잡한 레시피의 닭고기 요리도 많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히 해 먹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닭고기를 부위별로 팔기 때문에 집에서 따로 손질할 필요가 없어 요리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부위별 닭고기를 이용한 초간단 닭요리를 해보자. 🍗



닭가슴살 샐러드

재 료

닭가슴살 200g, 닭껍질 1마리분, 피망 1개, 양상추 2~3잎, 양파즙 1큰술, 딸기잼 1큰술, 옥수수통조림 4큰술, **소스**(마요네즈 1/2컵, 머스터드 1큰술, 식초 1/2큰술, 설탕 1/2큰술, 소금 약간)

만들기

- 1 닭껍질을 170℃ 기름에 갈색빛이 날 때까지 튀겨 안쪽에 딸기잼을 살짝 발라 네모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 2 닭가슴살을 삶아낸 후 가늘게 찢어놓고 옥수수와 가늘게 채 썬 양상추, 피망, 양파즙과 소스를 넣어 버무린다.
- 3 접시에 ①의 닭껍질 튀긴 것을 담고 ②의 샐러드를 소복히 담아 낸다.

닭살 옥수수 튀김

재 료

닭가슴살 200g, 옥수수통조림 1컵, 피망 1개, 표고버섯 2장, 양파 1/2개, 튀김가루 1컵, 녹말 1/4컵, 청주 1큰술, 계란 2개, 후추, 소금, 식용유

만들기

- 1 닭살은 가로 세로 1cm크기로 썰어 후추, 소금, 청주로 양념한다.
- 2 옥수수는 통조림으로 준비해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 3 피망, 양파, 불린표고버섯도 가로 세로 1cm크기로 썰어 놓는다.
- 4 넓은 그릇에 닭살, 옥수수, 양파, 피망, 표고를 담아 섞고 계란, 튀김가루, 녹말을 넣어 재료가 엉길 정도로 반죽한다.
- 5 170℃의 식용유에 반죽된 재료를 한숟가락씩 떠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겨낸다.



앞으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80%까지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2월 28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해 축사를 난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지열난방시스템을 도입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시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축산업 중 닭(오리) 사육업 및 양돈업을 등록한 경우로 양계농가의 경우 사육규모가 3만수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창계사 시설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가 50mm 이상이어야 하고 새롭게 축사를 설치할 예정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 60%와 지방비 20%를 합쳐 최대 80%까지 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농가의 자부담률을 20%로 해당 농가는 각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열’ 이용 축사 난방시설 보급길 열린다

농식품부, 농가에 시설비 최대 80% 보조

사업추진에 앞서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지열난방시스템을 개발, 특허출원을 이미 완료했다.

지열난방장치는 지하수에 저장된 열을 이용하여 12~25℃의 열을 히트펌프에서 변환, 여름철에는 10~15℃로 낮춰 냉방에 사용하고 겨울철의 경우 40~50℃로 온도를 높여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축산과학원은 지열난방을 사용한 무창계사의 경우 기존의 난방시설을 이용한 계사에 비해 연료비가 줄고 계사내부의 유해가스 농도도 감소하면서 닭의 출하체중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5만수(2,691㎡) 규모의 무창육계사 기준으로 관행난방을 할 경우에는 연간 2만7천382ℓ의 경유가 소요됐으나 지열난방은 5천428ℓ의 연료가 소모돼 80%의 연료 절감효과가 있었다. 특히 계사 내부의 암모니아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농도는 30~40% 낮출 수 있었다. 또한 유해가스 농도가 낮아지면서 출하체중이 좋아져 관행난방의 경우 5주령시 1.9kg, 6주령시 2.38kg인데 비해 지열난방 계사는 5주령 2.0kg, 6주령 2.5kg으로 5%정도의 체중증가 개선효과가 있었다.

“무창 육계사 기준으로 관행난방을 할 경우에는 연간 2만7천382ℓ의 경유가 소요됐으나 지열난방은 5천428ℓ의 연료가 소모돼 80%의 연료 절감효과가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많은 농가들이 지열난방시스템은 설치비가 비싸고 초기에 목돈이 필요해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농가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미 200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

농림수산식품부,
일본산 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한다



일본산 축수산물 총 26개 품목 대상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폭발로 국내에서도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3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사가 강화된 대상은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했던 3월 12일 이후 일본에서 생산 가동된 모든 축산물 및 일본산 수산물(17개 품목)과 연근해산 수산물(9개 품목 및 원양어획물) 등 총 26개 품목이다.

수산물의 경우 총 2단계에 걸쳐 모니터링 검사가 진행된다.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는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2단계는 월 1회 방사능(131I, 134Cs+137Cs)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로 해수산과 담수산으로 구분해 6개월마다 최초 수입신고된 1개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매년 모니터링 검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올해에는 총 100건의 모니터링 검사가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일본산 수입 축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



 **대한양계협회**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사)대한양계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 농식품부 · 소비자시민모임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의 가치와 공정성이 높습니다.



대한양계협회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